

# 단절·갈등·실직…불안한 일상 담아낸 작품 많아

2026 광주일보 신춘문예 심사

시·소설·동화 등 2848편 응모  
타지역 응모 많아…열기 뜨거워  
당선작 2026년 신년호에 발표

문청들의 열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2026 광주일보 신춘문예 심사가 끝났다. 18일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진행된 심사에는 전성태 소설가, 김중일 시인, 서향숙 동화작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올해 신춘문예는 예년의 응모를 상회하는 기록을 보이는 등 신춘문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지난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전반적으로 창작에 대한 열망이 확대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학을 통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예비 작가들의 간절한 바람이 투영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경향성 측면에서는 다소 불안한 일상을 담아낸 작품들이 많은 편이었다. 세상과의 단절, 가족 갈등, 폭행, 실직 등 일상의 사소한 문제들을 모티브로 형상화한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

올해는 시 2314편, 소설 296편, 동화 238편 등 2848편이 응모됐다. 지난해에 비해 전체적으로 200여 편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시 응모작품이 예

년보다 많이 늘어 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일상에서 시를 쓰고자 하는 예비 문인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올해도 광주전남 외 타 지역에서 응모한 문정들이 많았다.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외에도 부산, 대구, 대전, 세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작품이 투고됐다. 한명이 여러 작품을 투고한 경우, 장르를 달리해 두 분야에 투고한 경우 등도 있었는데 신춘문예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소설은 개인적인 상처와 아픔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 적지 않았다. 다만 그것을 서사화, 심미적으로 형상화하는 데는 미흡했다.

전성태 소설가는 “대체로 한국 소설이 도달한 감수성과 표현방법에 미달한 작품이 많았다. 문학 역시 문학사와의 대화 가운데서 태어나므로 자기 이야기만 하면 되는 장르가 아니다”며 “그럼에도 돌봄, 노동, 연대와 관련된 글들이 읽을 만했고 현대인들의 분단이 어디에서 오는지 묻는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시 부문은 여전히 이어지는 불안정한 시국, 고도화되는 AI,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 심화되는 양극화 등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

김중일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기” 중인 사람들의 이야기 향연을 접할 수 있었다”며 “다만 ‘기억’이라는 관념 속에서 말갛게 ‘시’로 견제냈을 때 독자 모두의 것이 되어도 좋을 새롭고 선명



2026 신춘문예 심사가 18일 본사 편집국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전성태 소설가, 김중일 시인, 서향숙 동화작가.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한 윤곽을 가지는 작품은 드물었다”고 밝혔다.

조선의 시인은 “응모작 가운데는 절마다 생각의 색깔이 분명하면서도 소소한 일상을 서정으로 견져 올리려는 고투가 엿보였다”며 “새롭고 따뜻한 세계에 대한 도전의식이 있는 시를 마주할 수 있어서다

행이었다”고 밝혔다.

동화는 예년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작품이 평이한 수준이었다는 후문이다. 서향숙 동화작가는 “동화의 본령은 환상동화가 본령이라고 생각하는데 투고작 가운데는 사실동화가 적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사실적인 부분과 환상적인 부분이 접목된 작품이 더 돋보이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각 부문 당선작은 2026년 광주일보 신년호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땅은 우리의 역사를 기억한다”

창작 듀오 KIM/ILLI 전시…19일부터 중도 소금박물관

신안 중도의 태평염전은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을 구제하고 소금 생산 증대를 위해 조성된 곳이다.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들은 거센 바람과 작열하는 햇빛 아래서 하루하루 소금밭을 일궜다.

피부에 맺힌 땀과 바닷물이 뒤섞여 소금이 되었고, 그 위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의지와 희망이 켜켜이 쌓였다. 신안의 땅이 품고 있는 기억을 예술의 언어로 풀어낸 전시가 열린다.

창작 듀오 KIM/ILLI(김슬비·크리스티안 테네프란치아 일리)는 전시 ‘땅은 우리가 아직 해독하지 못한 파장을 통해 기억한다’를 19일부터 내년 3월 19일까지 신안군 중도 소금박물관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태평염전 아트 프로젝트 ‘소금 같은 예술’ 2025 국제공모전 수상 작가전의 하나로 마련됐다.

12주간 중도에 머물며 작업한 KIM/ILLI는 이곳이 지난 역사와 환경에 주목했다. 중도는 오랜 시간 노동과 채굴, 농경과 산업의 흔적이 축적된 공간이다. 작가들은 땅에 남은 침전물과 색의 변화를 시간과 환경이 지나온 흔적으로 해석했다. 땅을 단순한 자연 배경이 아닌 사람들의 경험과 시간이 스며든 기억의 공간으로 본 것이다.

전시는 물질과 영상, 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관람객은 눈에 보이는 이미지뿐 아니라 쉽게 드러나지 않는 감각의 흐름을 따라 전시를 경험하게 된다.

다채널 영상 설치 작품 ‘Field Notes on (Structural) Silence: Or, How to Camouflage with Colours’는 이러한 시선을 잘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침묵은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KIM/ILLI 아외 작품 설치 퍼포먼스의 한 장면.

<소금 같은 예술 제공>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환경과 구조의 결과로 제시된다. 영상은 기록으로 남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전시 개막에 앞서 작가들은 야외 작품 설치 과정에서 진도 씷김굿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했다. 태평염전을 일군 실향민들이 머물렀던 돌집 인근에서 펼쳐진 씷김굿은 이 땅에 스며든 삶의 기억과 상처를 이루만지는 의미를 더했다.

한편 KIM/ILLI는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건축과 예술, 디자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사운드와 퍼포먼스, 영상, 설치, 리서치를 결합해 도시와 풍경,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탐구해 왔다.

KIM/ILLI는 “이번 전시는 신안이라는 장소에서 출발해 기억과 기록, 환경과 감각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며 “신안의 자연과 역전의 기억 그리고 작품들이 어우러져 관람객이 온몸으로 느끼는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

## ‘꿈의 극단’ 무대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ACC재단, ‘꿈의 극단 광주 동구’ 사업설명회…내년부터 본격 운영

‘꿈의 예술단’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무대의 주체가 돼 자신만의 연극을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극본을 쓰고, 이야기를 재구성하며 자신과 친구들, 사회를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이하 ACC재단)은 지난 17일 오후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꿈의 극단 광주 동구’ 사업설명회를 열고 지역 기반 문화예술 교육 사업의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ACC재단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꿈의 예술단’ 사업의 예비지원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ACC재단은 현재 전문가·자문과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수요조사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꿈의 극단 광주 동구’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꿈의 극단 광주 동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연극의 기획부터 창작·제작·공연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 중심 프로그램이다. 무대 위 연기활동과 함께 무대 뒤에서 이

뤄지는 공연 직무 체험을 연계해 연극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놀이와 실험, 창작으로 이어지는 단계형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표현력과 협업 능력을 키우고 함께 작업하는 과정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데 초점을 둔다.

내년부터 본격 운영되는 ‘꿈의 극단’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연극 경험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다.

ACC재단은 광주 동구 거주자와 지역 내 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배려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명규 ACC재단 사장은 “아이들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 어가는 과정 자체가 ‘꿈의 극단’ 프로그램의 핵심”이라며 “연기뿐 아니라 무대와 조명, 음향 등 공연 전반을 경험하며 각자의 역할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KIM/ILLI 아외 작품 설치 퍼포먼스. <소금 같은 예술 제공>

## ‘수연회전’ 23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수연회는 목숨 ‘수’(壽), 벼루 ‘연’(硯)자가 들어 있는 명칭이다. 회원들이 장수하라는 기원을 담아 지은 이름이다. 회원들은 이집숙 지립한문서예원장의 지도로 오랫동안 글씨를 써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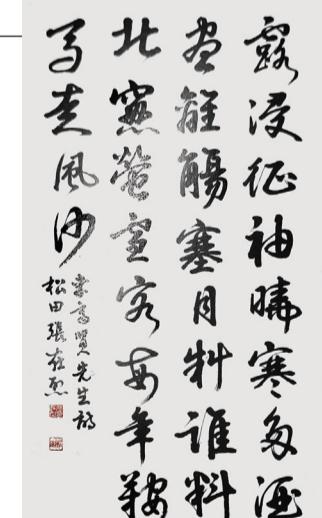
수연회가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수연회전’을 오는 23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에는 모두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장재열 회장을 비롯해 강석호, 김태옥, 김수영, 신동숙, 장현덕, 정영숙 등이 참여했다.

장재열 회장은 고려 후기의 문인 익재 이제현의 글을 출품했다. 초야에 묻혀 사는 가난한 선비의 올곧은 마음을 투

영한 작품이다. “이슬 내려 소매를 적시니 새벽 천기운 놀고 / 술이 달해 술잔 내리니 변방의 달이 비끼네./ 누가 북장의 기난한 선비를 헤어려 주리오./ 매년 말안장에 앉아 모래바람을 달리네.”

장재열 회장은 “수연회전은 이점숙 선생의 문하생들로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세 번째 전시회를 갖는다”며 “서예 작품은 예술적 아름다움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정신적 가치와 작가의 고매한 정신, 인격이 잘 어우러졌을 때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장재열 작 ‘익재 이제현 글’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